



新羅 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A Research Trend Regarding the Zen History in the Late Silla

저자 (Authors)	鄭東樂 Jung Dong-La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7 , 2011.4, 213-255 (43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7 , 2011.4, 213-255 (4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40117
APA Style	鄭東樂 (2011). 新羅 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한국고대사탐구, 7, 213-25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6:0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下代 禪宗史 研究動向

鄭 東 樂*

- I. 머리말
- II. 시기별 연구동향
- III. 산문별 연구동향
- IV. 자료정리와 분석
- V. 맺음말

【국문초록】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료정리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선종은 지방호족의 종교라는 성과가 도출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선종의 宗派성립과 9山禪門의 실재 여부, 정치세력과의 관계, 敎禪의 위치정립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0년대에는 선종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구분과 中世佛敎의 성격, 선승의 사회개혁론, 개별 산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2000년대에는 선종과 신라왕실의 관계가 크게 부각되었고, 9산선문의 개별적인 검토, 선승들의 활동과 선사상, 신라 西南지역 선종산문과 張保臯 세력과의 관계가 주목되었다.

이처럼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정치세력과의 관련성, 선종과 교종(화엄종)의 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문제가 신라 하대 선종사를 밝히는 핵심적인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종파성립의 시기와 9산선문의 실재, 선종사의 시기구분과 중세불교의 성격, 개별 산문과 선승, 지역별 선종산문의 분석 등이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신라 하대의 선승들은 시대적 전환기에 현실을 고뇌하고 행동하는 知性으로서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자신의 삶을 살아간 知識人이었다. 따라서 이들 선승들에 대해 주목하여 그들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었고, 현실인식과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승들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고, 생의 마디마다 나타나는 선택과 문제의식을 정리해야 한다. 그 방법론의 일환으로 신라 하대 선종사를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시기구분하고, 각 시기별 선승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신라 하대(新羅下代), 선종사(禪宗史), 선승(禪僧), 9산선문(九山禪門), 연구동향(研究動向)

I. 머리말

신라 하대¹⁾는 신라에서 고려로 왕조가 바뀌는 지배세력의 교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수반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추구되어, 고대적인 신분체제가 붕괴되고 중세사회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당시의 지식인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새로운 사회이념을 제시하였다는 관점에서 ‘中世知性’으로 정의하거나,²⁾ ‘중세적 측근정치의 지향’으로 파악하였다.³⁾ 설혹 고

- 1) 신라 하대, 나말려초, 후삼국시대라는 용어는 시대구분 상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시대 용어이다. 나말려초는 연구자에 따라 ‘신라 하대에서 고려 성종 무렵까지’, ‘진성여왕에서 고려 태조에 의한 통일 완성기까지’, 혹은 ‘진성여왕에서 성종 초까지’ 약 100여 년간의 시기로 다루고 있다(全基雄, 『羅末麗初의 政治社會와 文人知識層』, 혜안, 1996, 11쪽). 근래에는 후삼국사를 독립된 시기구분 아래에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역사적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후삼국시대로 다루기도 하였다(신호철,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2008, 13~14쪽). 이 글에서는 ‘신라 하대’와 ‘나말려초’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新羅史學報』17, 2009 참조.
- 2) 金哲俊, 『羅末麗初의 社會轉換과 中世知性』, 『創作과 批評』겨울호, 1968 ; 金

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로 보지 않더라도, 급격한 전환기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사실, 나말려초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상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경주중심의 眞骨귀족에서 지방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소위 ‘地方豪族’세력⁵⁾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哲俊, 『韓國古代政治의 性格과 中世政治思想의 成立過程』, 『東方學誌』10, 1969; 金哲俊,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 『韓國史時代區分論』, 韓國經濟史學會, 1970;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1975.

- 3)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85, 1980;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4) 金甲童, 『新羅·高麗의 王朝交替와 郡縣制의 變化』,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金갑동, 『호족의 대두와 집권화 과정』, 『한국역사입문』 ②, 풀빛, 한국역사연구회, 1995; 金光洙, 『羅末의 社會變動』, 『제2판 韓國史入門』, 知識產業社, 1987; 金潤坤, 『韓國中世史에서 시기구분과 각 시기의 특징』,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金윤근, 『중세사 시대구분론』, 『고려시대사상의』, 늘함께, 한국중세사학회, 1997; 朴漢高, 『豪族과 王權』, 『제2판 韓國史入門』, 知識產業社, 1987; 新호철, 『豪族勢力의 成長과 後三國의 鼎立』,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新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韓國古代史研究』50, 2008; 全基雄, 『新羅末 政治·社會의 動搖와 六頭品知識人』,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申潁植, 『21세기 한국사의 방향 모색 : 고대사』, 『韓國史論』30, 국사편찬위원회, 2000; 鄭용숙, 『총설』, 『고려시대사상의』, 늘함께, 한국중세사학회, 1997; 鄭호섭, 『신라하대의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입문』3, 신서원, 2006; 趙仁成, 『新羅末 農民反亂의 背景에 對한 一試論』,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조인성, 『신라하대·후삼국』,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조인성, 『고대사회의 해체』,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한국역사연구회, 2008; 채웅석, 『통일신라에서 고려로의 왕조 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사시민강좌』40, 일조각, 2007; 하일식, 『고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사연구 50년』, 해안, 2005; 황선영, 『나말려초의 사회변동과 고려의 성립』, 『고려시대사상의』, 늘함께, 한국중세사학회, 1997.
- 5) 이기백이 나말려초를 ‘豪族의 時代로 파악한 이후 이 시기에 대두한 지방세력을 대부분 豪族으로 파악하고 있다(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67). ‘호

등장하였으며, 骨品制를 근간으로 하는 혈연중심의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良賤制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적 성격이 강화된 門閥貴族사회로 변화되어 갔다. 또한 토지와 人身에 대한 지배와 수취가 가능했던 祿邑制에서 田柴科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사회의 주도층 역시 村主에서 鄕吏층을 중심으로 하는 土姓吏族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였던 사회적 배경과 주도세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라 하대의 변화상과 호족세력,⁶⁾ 後百濟와 甄萱,⁷⁾ 後高句麗(摩震泰封)와 弓裔,⁸⁾ 王建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과정⁹⁾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¹⁰⁾

족' 용어에 대해서는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潮閣, 1993 참조.

- 6) 곽승훈,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韓國史學, 2005 ; 權英五, 『新羅下代 政治變動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7 ;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 해안, 2011 ;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新浩철,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도서출판 개신, 2002 ; 新浩철, 『후삼국사』, 도서출판 개신, 2008 ; 李基東, 앞의 책, 1984 ; 李基東,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 이도학, 『궁예 진환 왕건과 열정의 시대』, 김영사, 2000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 全基雄, 앞의 책, 1996 ;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2010 ; 최근영, 『통일신라시대의 지배세력연구』, 신서원, 1993 ; 韓國古代史研究會 편,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 7) 申虎澈, 『後百濟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3 ; 이도학, 『진환이라 불러다오』, 푸른역사, 1998 ;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건환정권과 전주』, 주류성, 2001 ; 충남대 백제연구소, 『후백제와 건환』, 서경문화사, 2000 ; 후백제문화사협회,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4.
- 8) 김용선 등,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 신성재, 『궁예정권의 군사정책과 후삼국전쟁의 전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재범, 『슬픈 궁예』, 푸른역사, 2000 ; 李在範, 『後三國時代 弓裔政權 研究』, 해안, 2007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 9) 김갑동, 『태조 왕건』, 푸른역사, 2000 ;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경문화사, 2010 ; 김명진, 『高麗 太祖 王建의 統一戰爭 研究』, 경복대

한편, 신라 하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조응하여 사상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가, 혹은 사상의 변화가 사회변동을 어떻게 견인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변화상을 고찰하였다. 이 시기 사상계의 특징은 敎宗의 침체와 禪宗의 확산, 風水地理思想의 풍미, 유학의 발전과 유교 정치이념의 대두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신라 하대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선종의 수용과 정착, 그리고 확산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주목되었다.¹¹⁾ 신라 하대의 선종은 종교사상적인 측면에서 한국 선종의

박사학위논문, 2009 ; 文暲鉉, 『高麗太祖의 後三國 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 文秀鎭, 『高麗의 建國과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 朴漢高, 『高麗 建國의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5 ; 유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5 ; 陰善赫, 『高麗太祖王建 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재범, 『고려 건국기 사회동향 연구』, 경인문화사, 2010 ; 丁善裕, 『高麗太祖의 新羅政策 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최규성, 『高麗 太祖 王建 研究』, 주류성, 2005 ; 洪承基 편,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출판부, 1996 ; 黃善榮, 『高麗 初期 王權 研究』, 東亞大出版部, 1988 ; 황선영, 『나말려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10)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중세사연구』29, 2010. 이인재, 『나말려초 사회변동과 후삼국』 ; 하일식,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 한기문, 『佛敎를 통해 본 통일신라고려 왕조의 연속성-종단사상을 중심으로-』 ; 金琪燮, 『신라 중고기중대 균전제 이념의 수용과 전개-신라와 고려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 김복순,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불교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54, 2009.
- 11) 金杜珍, 『統一新羅 思想』 『韓國史論』1, 國史編纂委員會, 1981 ; 金杜珍, 『佛敎와 儒敎』 『제2판 韓國史入門』, 知識産業社, 1987 ; 金杜珍, 『高麗時代 思想 및 學術』 『韓國史論』23, 國史編纂委員會, 1993 ; 김두진, 『羅末 麗初 불교사 연구의 문제점』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불교시대사, 1994 ; 金杜珍, 『불교의 변화』 『한국사』11, 國史編纂委員會, 1996 ;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歷史學報』188, 2005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 김복순, 『신라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입문』3, 신서원, 2006 ; 金福順, 『신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 『新羅文化』26, 2006 ; 김영미, 『불교 신앙과 사상』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上, 지식산업사, 2008 ; 金鎔坤, 『高麗時期 思想史 研究動向과 『국사』 敎科書의 敍述』 『歷史敎育』44, 1988 ;

출발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극심한 사회 변동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한국 불교사상사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 글에서는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10년을 단위로 시기별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산문별 연구 성과, 자료의 정리와 분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시기별 연구동향

1. 1970년대 : 선종사 연구의 토대 구축

신라 하대의 선종불교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능화, 권상로, 忽滑谷快天 등이 중국 선종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¹²⁾ 이들 연구는 대체로 자료정리나 간략한 소개, 선승의 약전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소략한 편

曹凡煥,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 蔡尙植 「古代·中世初 思想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45, 1989 ; 채상식, 「교선의 문제와 신앙결사운동」, 『한국역사입문』②, 풀빛, 한국역사연구회, 1995 ; 崔柄憲, 「佛敎·風水圖識思想」, 『제2판 韓國史入門』, 知識產業社, 1987 ; 崔仁杓, 『羅末麗初 禪宗佛敎政策 研究』, 효가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新羅末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a ; 한기문, 「불교」, 『고려시대사상의』, 늘함께, 한국중세사학회, 1997.

12) 權相老, 『朝鮮佛敎略史』, 新文館, 1917 ; 權相老, 「朝鮮의 禪宗은 어떠한 歷史를 갖었는가」, 『禪苑』1·2, 1931·1932 ; 李能和, 『朝鮮佛敎通史』下, 新文館, 1918 ; 忽滑谷快天, 『朝鮮禪敎史』, 春秋社, 1930.

이었다. 다만, 신라 하대 선종불교를 9산선문으로 파악한 것은 이후 선종사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신라하대 선종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金映遂였다.¹³⁾ 그는 신라 하대 불교를 5교 양종과 선종 9산문으로 파악하고, 敎禪의 宗派성립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불교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한동안 선종사 연구는 진척되지 못하였다. 다만, 권상로가 9山門說을 재확인하는 정도였다.¹⁴⁾

1970년대에 들어와 나말려초를 중세로의 전환기로 보고 선종을 中世 知性으로 파악한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먼저, 최병헌·김두진은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최병헌은 신라 하대 선종의 전래와 9산문의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선승들의 신분과 후원세력의 사회적 성격, 정치세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¹⁵⁾ 김두진은 聖住山門의 無染, 五冠山 順之 등의 선종사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¹⁶⁾ 이들의 연구 방법론은 이후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 하대 선종사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기두는 신라선종을 北山禪은 純禪이며, 南岳禪은 교선융합적인 성격을 지닌 融禪

13) 金映遂, 「五敎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8, 1937; 金映遂, 「曹溪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9, 1938.

14) 權相老, 『韓國禪宗略史』,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1959.

15)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7, 1972;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25, 1975a; 崔柄憲, 「道說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 『韓國史研究』11, 1975b;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4, 서울대, 1978a; 崔柄憲, 「禪宗九山의 成立과 下代佛敎」, 『한국사』3, 國史編纂委員會, 1978b.

16) 金杜珍, 「朗慧와 그의 禪思想」, 『歷史學報』57, 1973; 金杜珍, 「了悟禪師 順之의 ‘相’論」, 『韓國史論』2, 서울대, 1975a; 金杜珍, 「了悟禪師 順之의 禪思想- 그의 三遍成佛論을 中心으로-」, 『歷史學報』65, 1975b.

으로 파악하였다.¹⁷⁾ 또한 曩陽山門의 법계를 검토하고, 선종 9산문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김영태는 旣讓의 法系 변경, 9山禪門의 성립시기를 고려초로 파악하였다.¹⁸⁾ 허홍식은 9山門說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¹⁹⁾ 김동화는 중국 초기 선종사를 정리하였다.²⁰⁾

1970년대 김두진·최병현 등은 敎宗(화엄)은 신라왕실의 사상이었고, 선종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지방호족의 사상이라고 파악하였다. 신라왕실=교종, 지방호족=선종이라는 인식은 이후 신라 하대 선종을 이해하는 분석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9산문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목된다.

2. 1980년대 : 선종사 연구의 활성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70년대의 연구경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면서 선종사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먼저, 신라 하대의 宗派成立 문제와 9山門說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허홍식은 宗派불교는 9세기에 형성되어 10세기에 확립되었다고 하면서, 9山門說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禪宗說을 제안하였다.²¹⁾ 사실, ‘선

17) 韓基斗, 『新羅 禪의 基礎思想』, 『圓光大學校論文集』8, 1975a ; 韓基斗, 『新羅의 禪思想』, 『崇山朴吉眞博士 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 1975b ; 韓基斗, 『新羅時代의 禪思想-新羅禪의 南嶽과 北岳-』, 『韓國佛敎學』1, 1975c ; 韓基斗, 『韓國佛敎思想研究』, 一志社, 1980.

18) 金煥泰, 『曩陽山禪派의 成立과 그 法系에 대하여』, 『韓國佛敎學』14, 1979a ; 金煥泰, 『五敎九山에 대하여-新羅代 成立說의 不當性 究明-』, 『佛敎學報』16, 1979b ;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20, 國史編纂委員會, 1990 ; 金煥泰, 『佛敎思想史論』, 民族社, 1992 ; 金煥泰, 『九山禪門의 成立과 그 性格에 대하여』, 『普照思想』9, 1995.

19) 許興植, 『高麗前期 佛敎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 『韓國學報』11, 1979.

20) 金東華, 『禪宗思想史』, 太極出版社, 1975.

중 9산문설'에 대해 종파를 부정하는 '종파부정설'이 조명기-안계현에 의해 제기되었고,²²⁾ 종파를 인정하면서도 9산문설을 수정하는 '수정설'로 한기두-김영태가 9산문의 성립 시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²³⁾ 이러한 상황에서 허홍식은 9산문의 실재를 부정하면서 '禪宗說'을 주장한 것이다.²⁴⁾ 이에 대해 고익진-추만호는 9산문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⁵⁾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선종설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신라 하대는 9산문으로 정리하고, 고려시대는 선종을 비롯한 4대종파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선종과 사회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만호는 호족이 아니라 지방민²⁶⁾ 고익진-한기문은 하대 왕실을 주목하였다.²⁷⁾ 선종의 사회적 지원세력으로 호족뿐만 아니라 일반민-하대 왕실 등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 시각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상황과 禪과 敎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였다. 고익진-김복순-김상현-조경시 등은 신라 하대의 선종과 화엄종은 상호병립(공존)하였다고 파악하였다.²⁸⁾ 王建의 불교정책, 선종사원의 운영, 불교 행정

-
- 21) 許興植, 앞의 논문, 1979 ; 許興植, 『禪宗九山門과 禪門祖師禮懺文의 問題點』, 『歷史教育論集』5, 1983 ; 許興植, 『高麗初 禪宗九山派說의 疑問點』,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 許興植, 『禪宗 九山派說의 批判』,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 22) 趙明基, 『韓國佛教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4, 1970 ; 安啓賢, 『三國遺事와 佛教宗派』, 『三國遺事의 新研究』, 1980.
- 23) 金煥泰, 앞의 논문, 1979a ; 金煥泰, 앞의 책, 1992 ; 韓基斗, 앞의 논문, 1975c.
- 24) 許興植, 앞의 논문, 1983 ; 許興植, 앞의 논문, 1986 ; 許興植 앞의 책, 1986.
- 25) 高翊晉, 『新羅下代の 禪傳來』, 『韓國禪思想研究』, 東國大 佛教文化研究院, 1984 ;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 추만호, 『나말려 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 26) 秋萬鎬, 『羅末 禪師들과 社會諸勢力과의 關係-眞聖女王代の 農民叛亂에 주목하여-』, 『史叢』30, 1986.
- 27) 高翊晉, 앞의 논문, 1984 ;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大丘史學』22, 1983.

제도 등도 고찰하였다. 김두진·한기문은 고려태조의 선종불교정책²⁹⁾ 허흥식·한기문은 선종사원과 불교제도³⁰⁾ 채상식은 淨土寺의 운영직제를 다루었다.³¹⁾ 그리고 고려초 불교계의 敎禪교섭 경향과 중국 선종 수용의 변화상도 지적되었다. 김두진은 玄暉와 坦文의 교선융합사상과 法眼宗의 교선 일치사상을,³²⁾ 채인환은 馬祖 道一계에서 石頭 希遷계로의 변화를 살폈다.³³⁾ 그와 함께 桐裏山門, 岫山門 등 개별산문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³⁴⁾

1980년대의 주목되는 성과는 허흥식의 『高麗佛敎史研究』이다. 이 책은 신라 하대의 종파성립과 5교 9산설을 비판하고, 고려시대 불교계를 4대종파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沙林院 弘覺선사비』 등 선사비와 음기 등

-
- 28) 高翊晉, 앞의 논문, 1984 ;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 金相鉉, 『新羅 華嚴學僧의 系譜와 그 活動』, 『新羅文化』1, 1984 ; 金相鉉, 『新羅下代 華嚴思想과 禪思想-그 갈등과 공존-』, 『新羅文化』6, 1989 ;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民族社, 1991 ; 曹庚時, 『新羅下代 華嚴宗의 構造와 傾向』, 『釜大史學』13, 1989 ; 崔源植, 『新羅 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49, 1985.
- 29) 金杜珍, 『王建의 僧侶結合과 그 意圖』, 『韓國學論叢』4, 1982 ; 韓基汶, 앞의 논문, 1983.
- 30) 韓基汶, 『新羅末 高麗初의 戒壇寺院과 그 機能』, 『歷史教育論集』12, 1988 ;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앞의 책, 1986 ; 許興植, 『新羅佛敎界의 組織과 行政制度』,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8, 1987.
- 31) 蔡尙植, 『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高麗初 地方社會와 禪宗의 構造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36, 1982.
- 32) 金杜珍, 『高麗光宗代 法眼宗의 登場과 그 性格』, 『韓國史學』4, 1983 ; 金杜珍, 『玄暉(879~841)와 坦文(900~975)의 佛敎思想-高麗初의 禪敎融合思想과 關聯하여-』, 『歷史와 人間의 對應』, 한울, 1984.
- 33) 蔡印幻, 『高麗前期의 禪思想의 展開』, 『韓國禪思想研究』,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84.
- 34) 신라 하대 선종의 산문별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검토키로 한다.

을 소개·분석하였다. 허흥식은 선종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상 1980년대에는 종파성립, 9山門說과 禪宗說의 논쟁이 있었다. 또 선종과 사회세력과의 관계도 지방호족, 일반민, 신라왕실 등이 주목되었다. 신라 하대 불교계가 선종 일변도가 아니라 화엄종 등 교종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자를 병립적인 관계로 이해하였다. 더불어 왕건의 불교정책, 선종사원의 운영조직 등도 고찰되었다. 고려초의 敎禪교섭 경향과 桐裏山門·崛山門의 전개와 선사상도 주목되었다.

3. 1990년대 : 선종사 연구의 심화

1990년대에는 1970~1980년대에 제기되었던 논의들과 함께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선종사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먼저, 선종의 수용을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허흥식은 中世佛敎의 지표를 宗派성립으로 보고, 통일신라시대는 고대불교로 학파불교시대, 고려시대는 종파불교로 중세불교였다고 한다.³⁵⁾ 이에 반해 채상식은 종파성립의 기준은 불교 대중화이며, 그 시기는 신라 통일전쟁기라고 하였다.³⁶⁾ 추만호도 선종은 화엄종의 대안으로 등장한 봉건사회 지배이데올로기였다

35) 許興植, 『韓國佛敎의 宗派形成에 대한 試論』, 『金哲俊博士 華甲記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許興植, 『宗派의 起源에 대한 試論』, 앞의 책, 1986; 許興植, 『社會와 思想(宗敎)으로 본 韓國史의 時代區分』, 『震檀學報』71-72, 1991; 許興植, 『中世佛敎史의 試論과 方法』, 『佛敎社會史에서 본 中世의 範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1994; 許興植, 『佛敎思想史에서 본 古代의 起點과 終點』, 『古代와 中世 韓國史의 時代區分』, 韓國古代史研究會, 1995; 許興植, 『曹溪宗의 起源과 展開』, 『普照思想』9, 1995.

36) 채상식, 앞의 논문, 1989; 채상식, 『한국 중세불교의 이해방향』, 『考古歷史學誌』9, 1993; 蔡尙植, 『한국 중세불교의 이해 방향과 인식틀』, 『民族文化論叢』2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3.

고 한다.³⁷⁾ 이처럼 선종의 수용과 종파형성을 시대구분과 연결시켜 중세 불교의 이해로 시야를 확대하였다.

신라 하대 선종의 수용과 전개과정을 시기를 세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김두진은 신라 하대 선종사를 초기(~문성왕 이전), 문성왕~정강왕, 진성여왕 이후로 파악하였다.³⁸⁾ 추만호·김영미·이계표·조범환·최인표·한기문 등은 진성여왕대를 기점으로 2시기로 구분하였다.³⁹⁾ 반면, 허홍식은 고려건국을 기점으로 구분하였고,⁴⁰⁾ 정성본은 선승의 법계를 기준으로 헝강왕대를 주목하여 전후기로 파악하였다.⁴¹⁾ 이처럼 신라 하대 선종사를 농민봉기, 고려건국, 법계 등을 기준으로 헝강왕, 진성여왕, 고려 건국기 등을 기점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정치사에서 진성여왕대의 농민봉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향⁴²⁾과도 상통한다. 하지만, 후삼국의 정립(900년), 고려의 건국(918년) 등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정치·사회적 변동과 선종의 성격이나 法系 변화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7) 추만호, 앞의 책, 1992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a ; 추만호, 「나말여초 선사들의 선교양종 인식과 세계관」 『國史館論叢』52, 1994b ; 추만호, 「신라하대 사상계의 동향」 『한국사』4, 한길사, 1994c.

38) 金杜珍, 「新羅下代 禪師들의 中央王室 및 地方豪族과의 關係」 『韓國學論叢』20, 1997a.

39) 김영미, 「나말여초 연구와 금석문」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 1996 ; 李啓杓, 「신라하대의 迦智山門」 『全南史學』7, 1993 ; 曹凡煥, 「新羅 下代 禪僧과 王室」 『新羅文化』26, 2005a ; 崔仁杓, 「新羅末 高麗初 禪宗佛敎 統制-行政의 規制를 중심으로-」 『加羅文化』13, 1996a ; 추만호, 앞의 책, 1992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a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c ; 한기문,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40)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앞의 책, 1986.

41) 鄭性本, 「新羅禪宗의 形成」 『韓國宗敎思想의 再照明-震山 韓基斗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圓光大出版局, 1993 ; 鄭性本,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42) 권영오, 앞의 논문, 2009.

또한 禪宗과 教宗의 위치정립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정성본, 김복순, 추만호, 남동신, 조범환, 김영미 등은 양자를 병립적 혹은 공존관계로 파악하였다.⁴³⁾ 선종과 地方豪族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이어졌다. 김두진은 선종은 호족에게 어울렸다고 하였으나,⁴⁴⁾ 추만호는 일반민,⁴⁵⁾ 이계표와 조범환은 중앙왕실과 선별적·탄력적인 관계로 보았다.⁴⁶⁾ 선승과 사회세력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박정주는 사자산문과 후삼국의 관계를 추구하였고, 최인표는 선종불교의 신앙층이 왕실에서 일반민 등 다양했다고 한다.⁴⁷⁾ 아울러 弓裔王建과 선승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최규성은 궁예와 선종과의 관계,⁴⁸⁾ 서진교·심재명은 태조와의 결연을 검토하였다.⁴⁹⁾ 이처럼 1990년대에 들어와 교종에 대한 선종의 우위와 지방호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도 있지만, 선과 교가 병립적인 관계였으며

-
- 43) 金福順, 「新羅 下代의 禪宗과 華嚴宗 관계의 고찰」, 『國史館論叢』48, 1993 ; 金英美, 「朗慧無染의 禪思想」,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南東信,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對應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5, 1993 ; 鄭性本, 「新羅禪宗의 禪思想」,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山門」,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b.
- 44) 김두진, 앞의 논문, 1996 ; 金杜珍, 앞의 논문, 1997a ; 金杜珍, 「新羅下代 禪宗思想의 成立과 그 變化」, 『全南史學』11, 1997b.
- 45) 추만호, 앞의 책, 1992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a ; 추만호, 앞의 논문, 1994c.
- 46) 李啓杓, 「신라하대의 迦智山門」, 『全南史學』7, 1993 ; 曹凡煥, 「新羅末 聖住山門과 新羅王室」, 『國史館論叢』82, 1998a ;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寺 創建」, 『韓國古代史研究』14, 1998b ; 曹凡煥, 「新羅 下代 聖住寺와 地方勢力」, 『白山學報』55, 2000.
- 47) 朴貞柱, 「新羅末 高麗初 獅子山門과 政治勢力」, 『震檀學報』77, 1994 ; 李啓杓, 앞의 논문, 1993 ; 崔仁杓, 「선종불교 신앙계층의 성향」,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 48) 崔圭成, 「弓裔政權下的 知識人의 動向」, 『國史館論叢』31, 1992.
- 49) 徐珍教, 「高麗 太祖의 禪僧包攝과 住持派遣」,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 출판부, 1996 ; 沈在明, 「高麗 太祖와 四無畏大師-태조의 결연 의도를 중심으로-」,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출판부, 1996.

선종이 왕실 등 중앙을 비롯한 다양한 신앙계층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들이 지적되었다.

선승들의 현실인식과 사회개혁론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척되었다. 최인표·조범환·김영마·조인성 등은 無染의 유학사상과 현실인식을 살폈고, 김홍삼은 굴산문의 開淸과 行寂이 유교적 정치이념을 제시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조범환은 유학자인 최치원의 선종불교 인식을 검토하기도 했다.⁵⁰⁾ 선승들은 불교의 유용성을 강조하거나 유교적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종산문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사원 莊舍의 운영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김재응은 선종산문의 三綱典, 정선본·김두진은 선종산문의 경제적 기반, 이희관·조범환은 聖住寺의 경제적 기반을 검토하였다.⁵¹⁾

국가의 선종불교정책과 선승들의 수계, 선종사원의 운영조직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다. 조범환은 경문왕의 불교정책, 최원식은 선승의 受戒와 持戒, 최인표는 신라왕실의 선종불교 통제를 검토하였다.⁵²⁾ 특히, 최인표

50) 金英美, 『新羅社會의 변동과 佛敎思想』, 『韓國思想史方法論』, 少花, 1997; 金英美, 『新羅 下代 儒佛一致論과 그 의의』, 『白山學報』52, 1999; 金英美, 앞의 논문, 2001; 金홍삼, 『나말려조 굴산문 신앙의 여러 모습』, 『역사와 현실』41, 2001; 曹凡煥,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曹凡煥, 『新羅 下代 儒學者의 禪宗 불교 認識-崔致遠의 四山碑銘과 관련하여-』,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趙仁成, 『朗慧和尚塔碑銘의 撰述과 崔致遠』,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崔仁杓, 『朗慧無染의 現實認識과 指向社會』, 『大丘史學』51, 1996b.

51) 金杜珍, 『新羅下代 禪宗山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韓國學論叢』21, 1999; 金在應, 『新羅末-高麗初 禪宗寺院의 三綱典』, 『震檀學報』77, 1994;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鄭性本, 『新羅禪宗의 諸問題』, 앞의 책, 1995; 曹凡煥, 『聖住山門의 經濟的 基盤』, 앞의 책, 2001.

52) 曹凡煥, 『新羅 下代 景文王의 佛敎定策』, 『新羅文化』16, 1999; 崔仁杓, 앞의 논문, 1996a; 崔源植, 『羅末 麗初 禪僧들의 受戒와 持律』, 『白山學報』52, 1999; 『新羅菩薩戒思想研究』, 民族社, 1999.

는 선종불교와 집권세력과의 관계를 국가의 사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구하여, 박사학위논문인 『羅末麗初 禪宗佛教政策 研究』로 정리하였다.⁵³⁾ 김재응은 선종사원은 삼강전을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였다.⁵⁴⁾ 나말려초 선승들을 포함한 留學僧의 입당배경⁵⁵⁾과 경로⁵⁶⁾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그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와 개별 산문으로 聖住山門, 迦智山門, 鳳林山門, 獅子山門, 岫山門, 桐裏山門의 道誥, 順之와 無相, 神行의 北宗禪 사상 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는 선종사를 주제로 한 저서와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 추만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로 출간하였고, 정성본도 『新羅禪宗의 研究』를 출판하였다. 조범환의 『朗慧無染과 聖住山門』과 최인표의 『羅末麗初 禪宗佛教政策 研究』등이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되었다.⁵⁷⁾ 정성본은 중국 선종사를 종합하여 『中國禪宗의 成立史 研究』를 출판해 신라 하대 선종의 이해를 심화하였다.⁵⁸⁾ 또, 중국인의 시각에서 선종사가 정리되기도 했다.⁵⁹⁾

53) 崔仁杓,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54) 金在應, 앞의 논문, 1994.

55) 呂聖九, 「新羅中代 留學僧의 地盤과 그 活動」, 『史學研究』41, 1990 ; 呂聖九, 『新羅 中代의 入唐求法僧 研究』,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7 ; 呂聖九, 「統一期 在唐留學僧의 활동과 思想」, 『北岳史論』8, 2001.

56) 權惠永, 「唐 武宗의 廢佛과 新羅 求法僧의 動向」, 『정신문화연구』54, 1994 ; 權惠永,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航路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149, 1996 ;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57) 鄭性本, 앞의 책, 1995 ; 曹凡煥,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7 ; 崔仁杓,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8 ; 추만호, 앞의 책, 1992.

58) 鄭性本, 『中國禪宗의 成立史 研究』, 民族社, 1991 ; 鄭性本, 『禪의 歷史와 禪思想』, 三圓社, 1994.

59) 黃有福陳景富 著, 權五哲 옮김, 「중국선법의 한국 전파」, 『韓-中 佛教文化 交流史』, 까치, 1995.

이처럼 1990년대에는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가 급증하면서 기왕의 통설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분야로 연구시각이 확대되었다. 선종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사의 시대구분과 中世불교의 성격, 宗派불교의 성립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선종사의 전개를 시기구분하여 이해하였다. 敎禪의 위치정립과 사회세력과의 관계도 재검토되었고, 선승들의 현실인식과 사회개혁론은 새롭게 살펴졌다. 선종산문의 사회경제적 배경, 국가의 선종불교 통제 및 선종사원의 자치적 운영, 선승들의 입당구법 동기와 경로도 다루어졌다. 개별 선문으로 聖住山門을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고, 가지산문-봉림산문-사자산문-굴산문 등이 검토되었다. 더불어 순지와 무상, 신행의 북종선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추만호, 정성분, 조범환, 최인표 등의 저서와 박사학위논문은 선종사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2000년대 : 선종사 연구의 세분화와 다각화

2000년대에 들어와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기왕의 연구들을 재점검하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선승들의 생애와 활동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선종사 연구가 더욱 세분화되어 깊이와 폭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선종과 사회세력과의 관계가 꾸준히 검토되었다. 김두진은 선종과 지방호족의 관계를 강조하였으나,⁶⁰⁾ 한기문은 선종사원과 왕실이 ‘호혜적인 관계’, 조범환은 ‘불가분의 관계’, 최인표는 신라왕실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 남동신은 조화내지 공존관계로 보았다.⁶¹⁾ 後百濟와 泰封의 선

60) 金杜珍, 「나말여초의 선종산문과 그 사상의 변화」, 『新羅文化』27, 2006.

61) 남동신, 「나말여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56, 2005 ; 曹凡煥, 앞의

종불교정책도 다루어졌다. 김수태·조범환·김방룡·배재훈은甄萱의 선종불교정책을 주목했으며,⁶²⁾ 이경복·조범환은 弓裔와 岫山門의 관계를 살폈다.⁶³⁾ 이로써 신라왕실은 물론 고려, 후백제와 태봉(궁예)도 독자적인 선종불교정책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범환은 선종산문의 개창과정을 다루면서 왕실(중앙)과 선종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성과를 모아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로 출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9산문의 지원세력이 ‘중앙왕실과 진골귀족세력’이었음을 주목하였다.⁶⁴⁾ 조범환은 이후 서남지역의 선종산문, 玄扈, 道義 등을 검토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⁶⁵⁾ 선종과 사회세력과의 관계는 호족세력과의 연결을 강조하거나, 왕실과의 결연에 주목하여 양자의 관계가 호혜적·탄력적이며 조화와 공존을 모색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라 하대 선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산문이나 선승의 활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세력과의 관계가 추구될 필요가 있다.

신라 하대 선종 전래의 배경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김양정·석길암인

논문, 2005a ; 崔仁杓, 「新羅下代 禪宗教團의 動向과 王室의 對應」, 『新羅文化』 27, 2006 ; 한기문, 앞의 논문, 2001.

- 62) 김방룡, 「後百濟와 中國과의 佛敎交流」, 『후백제의 대외교류와 문화』, 후백제 문화사업회, 2004 ; 金壽泰, 「全州 遷都期 甄萱政權의 變化」,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 ; 金壽泰, 「甄萱政權과 佛敎」, 『후백제와 건환』, 百濟研究所, 2000 ; 裴宰勳, 「片雲和尚浮圖를 통해 본 實相山門과 甄萱政權」, 『百濟研究』 50, 2009 ; 조범환, 「후백제 건환정권과 선종」, 『후백제 건환정권과 진주』, 주류성, 2001.
- 63) 李璣馥, 「弓裔와 閻岫山門」, 『白山學報』 66, 2003 ; 조범환, 「태봉의 종교와 사상」,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 64) 曹凡煥, 앞의 책, 2008.
- 65) 曹凡煥, 「新羅 下代 西南地域의 禪宗山門 形成과 發展」, 『震檀學報』 100, 2005b ; 曹凡煥, 「新羅 下代 圓鑑國師 玄扈의 南宗禪 受容과 活動」, 『동북아 문화연구』 14,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2008 ; 曹凡煥, 「新羅 下代 道義禪師의 ‘雪嶽山門’ 開創과 그 向背」, 『新羅文化』 34, 2009.

경 등은 선종은 신라사회 내부의 자체발전과 필요성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⁶⁶⁾ 西學의 의미와 유학승의 활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루어졌다. 권덕영은 신라 하대 입당 구법승을 ‘西學과 ‘西化구법승’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⁶⁷⁾ 김병곤·김복순·김영미·이유진 등도 구법승들의 행적과 현황을 분석하였다.⁶⁸⁾ 중국과의 수교 후 관련 유적이 조사되고 있는 상황⁶⁹⁾에서 나온 주목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선종산문과 특정 지역과의 관계도 검토되었다. 신라 西南지역의 선종산문과 張保臯 세력과의 관계가 주목되었다. 조범환, 김수태·조범환은 서남지역 선종산문, 근동호일은 남종선 수용 배경, 장일규는 선사상 속의 法華觀音신앙, 최성은은 선종사찰의 鐵佛주조 등이 張保臯 세력과 밀접했음을 주장하였다.⁷⁰⁾ 다음으로 원주(北原京), 남한강 유역, 상주 등의 불교

- 66) 김양정, 「신라하대 사회와 불교계의 동향-도의국사 선사상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52, 2008b ; 석길암, 「나말려초 불교사상의 흐름에 대한 일고찰-선의 전래와 화엄종의 대응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26, 2006 ; 석길암, 「의상계 화엄의 禪의 경향성에 대하여」, 『韓國古代史探究』4, 2010 ; 인경, 「羅末 華嚴宗團과 禪宗의 諸問題」,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 67) 권덕영, 「新羅 西學求法僧의 한 部類-귀국하지 않은 승려들-」, 『佛敎史研究』3, 1999 ; 권덕영, 「新羅 下代 ‘西學’과 그 歷史의 意味」, 『新羅文化』26, 2005 ; 권덕영, 「신라 ‘西化’ 구법승과 그 사회」, 『정신문화연구』107, 2007.
- 68) 김복순, 「9~10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중국 유학과 활동반경」, 『역사와 현실』56, 2005 ; 金福順, 『新思潮로서의 新羅 佛敎와 王權』, 景仁文化社, 2008 ; 김병곤, 「新羅 下代 求法僧들의 行蹟과 實狀」, 『佛敎研究』24, 2006 ; 김영미, 「10세기 초 禪師들의 중국유학」, 『梨花史學研究』33, 2006 ; 이유진, 「羅末麗初 승려들의 入唐求法과 한중교류」, 『石堂論叢』46, 2010.
- 69) 卞麟錫, 「唐代 中國안의 韓國關聯 遺蹟과 그에 대한 考察-終南山 一帶의 佛敎寺刹을 中心으로-」, 『人文論叢』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 田重培, 「中國 江西省 지역 탐방기-선종 불적을 중심으로-」, 『東國史學』34, 2000 ; 田重培, 「9~10세기 한중 불교교류-중국 동남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회당학보』11, 2006 ; 曹永祿, 「中國 福建地域 韓國關係 佛跡 踏查記」, 『新羅文化』15, 1998 ; 曹永祿, 「최근 韓中 佛敎交流史研究의 경향과 특징-중국 南部지역의 한국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東國史學』34, 2000.

계의 동향을 살피면서 선종산문을 언급하였다. 이인재는 원주지역⁷¹⁾ 김혜완은 원주와 남한강 주변⁷²⁾ 한기문은 상주지역의 선종산문을 검토하였다.⁷³⁾ 이처럼 신라 西南지역 선종산문이 장보고의 해상세력과 밀접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사료 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승들의 佛法東流說, 系譜認識, 迦葉비유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박운진은 신라말의 불법동류설, 김영미는 선사들의 계보의식, 김혜완은 선사비문에 나타난 가섭비유, 권덕영은 차씨출신 선승들을 살펴 보았다.⁷⁴⁾ 아울러 조계종단에서는 종단사의 입장에서 신라 하대 선종을 정리하였고, 고영섭은 禪文化의 역할과 의미, 김방룡은 知識人으로서의 선승, 현각은 신라선의 역사적 의의에 주목키도 하였다.⁷⁵⁾

-
- 70) 近藤浩一(콘도 고이치), 『南宗禪과 新羅社會-張保阜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대의문물교류』7, 2007 ; 김수태·조범환, 『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5 ; 張日圭, 『신라 하대 서남해안 일대 선종산문의 정도신앙과 장보고의 범화신앙』 『新羅史學報』18, 2010 ; 曹凡煥, 『張保阜와 禪宗』 『STRATEGY21』4-2, 2002 ; 曹凡煥, 『新羅下代 武珍州地域 佛教界의 動向과 雙峰寺』 『新羅史學報』2, 2004 ; 曹凡煥, 앞의 논문, 2005b ; 崔聖銀, 『張保阜 선단과 신라 하대 불교조각』 『先史와 古代』32, 2010.
- 71) 이인재, 『나말러초 원주 불교계의 동향과 특징』 『원주학연구』2, 2001 ; 이인재, 『나말러초 복원경의 정치세력 재편과 불교계의 동향』 『韓國古代史研究』31, 2003 ; 이인재, 『고려초기 원주 지방의 역사와 문화』 『韓國思想과 文化』32, 2006.
- 72) 김혜완, 『신라하대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21, 2004 ; 김혜완, 『나말러초 남한강 주변의 선종사원과 선사들의 활동』 『韓國古代史研究』49, 2008.
- 73) 韓基汶, 『羅末麗初 尙州地域 禪宗山門의 動向과 性格』 『尙州文化研究』19, 2009.
- 74) 권덕영, 『신라하대 朴氏勢力의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49, 2008 ; 김영미, 『나말러초 선사들의 계보인식』 『역사와 현실』56, 2005 ; 김혜완, 『나말러초 선사비문에 나타난 迦葉비유』 『韓國思想史學』29, 2007 ; 박운진, 『신라말 고려초의 ‘佛法東流說’』 『한국중세사연구』21, 2006.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개별 산문과 선승들의 생애와 사상이 왕성하게 연구되었다. 岬山門에 대한 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고,⁷⁶⁾ 道義國師와 陳田寺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 졌다.⁷⁷⁾ 獅子山門, 曦陽山門, 鳳林山門, 實相山門, 桐裏山門, 須彌山門을 비롯해, 慧昭와 順之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는 선종사 연구자들이 기왕의 연구 성과를 저서로 발간하였다. 김두진은 그간의 성과를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와 『신라 하대 선종사상사 연구』로 정리하였다.⁷⁸⁾ 김수태·조범환의 『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조범환의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와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최인표의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김홍삼의 『羅末麗初 岬山門 研究』, 김광식(역음) 등의 『도의국사 연구』 등이 출간되었다.⁷⁹⁾

이상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선종과 사회세력의 관계는 꾸준히 검토되었고, 9산문의 개창은 중앙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음이 지적되었다. 선종의 전래 배경과 화엄종의 대응, 西學의 의미와 유학승의 입당 활동도 다루어졌다. 아울러 서남지역 선종산문과 張保臯 세력의 관계도 밝혀졌고, 원주남한강유역·상주지역 선종불교계의 동향도 다루어졌다. 무

75) 高榮燮, 『新羅末 禪文化의 형태와 발전』,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 김방룡, 『羅末 諸山門과 禪사상』,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編, 『조계종사』고증세련, 조계종출판사, 2004 ; 현각, 『신라선의 역사적 의의』,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76) 金興三, 『羅末麗初 岬山門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77) 김광식 역음,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 정영호, 『道義國師와 陳田寺』, 學研文化社, 2005.

78)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79) 김광식 역음, 앞의 책, 2010 ; 김수태·조범환, 앞의 책, 2005 ; 金興三,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2 ; 曹凡煥, 앞의 책, 2001 ; 曹凡煥, 앞의 책, 2008 ; 최인표, 앞의 책, 2007.

엇보다 2000년대에는 9산문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와 선승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김두진·조범환·최인표·김홍삼 등의 연구 성과들이 저서나 박사학위논문으로 출간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가 더욱 세분화, 다각화되고 있다.

Ⅲ. 산문별 연구동향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산문의 개창과 전개 과정, 법맥의 흐름과 사상적 특징, 선승들의 생애와 활동, 선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다시 종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9산선문을 중심으로 산문별 연구동향과 성과를 정리한다.

우선, 迦智山門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계표·이영호·김두진·김상영 등이 迦智山門의 개창과 전개 과정, 선종사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폈다.⁸⁰⁾ 정성본·김두진·차차석·정동락·김양정·조범환·조영록 등이 道義에 대해 정리하였다.⁸¹⁾ 그리고 최선화·조범환은 體澄,⁸²⁾ 권덕영·권기중은 利

80) 김두진, 「신라하대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선종사상」,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 김상영, 「고려시대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전개 양상과 불교사적 위상」,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 李啓杓, 앞의 논문, 1993 ; 이영호, 「신라 迦智山門의 法統과 位相 인식」, 『新羅文化』32, 2008.

81) 김광식, 「도의국사 종조론(宗祖論) 시말」,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敎史研究』, 小花, 1996 ; 김양정, 「道義國師의 禪宗史의 位相」, 『한국불교학』51, 2008a ; 김양정, 앞의 논문, 2008b ; 김양정, 「道義國師의 生涯와 行跡」, 『大覺思想』11, 2008c ; 정동락, 「元寂 道義의 생애와 禪사상」, 『한국중세사연구』14, 2003 ; 鄭性本, 앞의 논문, 1993 ; 鄭性本, 「新羅禪宗의 禪思想」, 앞의 책, 1995 ; 鄭性本, 「新羅 禪의 思想의 特性」, 『普照思想』9, 1995 ; 정성본, 「道義의 생애와 禪思想」, 『僧家教育』4,

觀⁸³⁾ 정동락은 □運에 대해 다루었다.⁸⁴⁾ 더불어 진전사의 유적과 유물을 고고미술사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⁸⁵⁾ 가지산문에 대해서는 최근 『도의국사 연구』가 발간되었고, 법계의 전승을 살피면서 體澄계(寶林寺계)와 北山계 등으로 분화되었음이 지적되었다.

實相山門에 대해서는 洪陟, 秀澈, 片雲화상과 정치세력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조범환은 洪陟, 배재훈은 片雲, 정동락은 秀澈화상, 추만호·정선중은 수철비와 음기를 관독하였다.⁸⁶⁾ 실상산문은 친신라 혹은 친후백제제로

2002 ; 曹凡煥, 앞의 논문, 2009 ; 조영록, 「도의선사의 입당 구법의 길 따라」, 『僧家教育』4, 2002 ; 조영록, 「道義의 在唐 求法行程에 관한 연구-『祖堂集』 관련기사의 비판적 검토-」, 『한국불교학』57, 2010 ; 차차석, 「南宗禪의 初傳者 道義禪師의 思想과 그 淵源探究-中國禪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 차차석, 「도의국사의 구법과 중국 선불교」,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82) 조범환, 「新羅 下代 體澄禪師와 迦智山門의 開創」, 『정신문화연구』100, 2005 ; 최선희, 「체징과 가지산문 개창」, 『全南史學』25, 2005.

83) 권기중, 「弘覺禪師碑文을 통해본 禪林院」, 『강좌미술사』18, 2002 ; 權惠永, 「新羅 弘覺禪師碑文의 復元試圖」,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 權惠永, 「弘覺禪師碑文을 통해본 신라 億聖寺址의 추정」, 『史學研究』55-56, 1998 ; 權惠永, 「비문복원연구」, 『襄陽 禪林院址 弘覺禪師塔碑 碑身復元工事 修理報告書』, 양양군, 2008a ; 권덕영, 「신라 弘覺禪師塔碑 원형 연구」, 『新羅文化』32, 2008b ; 권덕영, 「新羅 道義禪師의 初期 法系와 億聖寺」, 『新羅史學報』16, 2009.

84) 권순철·김현정, 「榮州 毘盧寺 樓閣新築敷地 발굴조사의 성과」, 『新羅史學報』13, 2008 ; 동양대학교 박물관, 「영주 비로사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 2008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26, 2009a.

85) 정영호, 앞의 책, 2005 ; 정영호, 「도의국사의 사적(史蹟) 연구」,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 洪性益, 「陳田寺址 道義禪師 浮屠名에 대하여」, 『江原史學』17-18, 2002.

86) 裴幸勳, 앞의 논문, 2009 ; 정동락, 「秀澈和尚(815~893)과 新羅王室」, 『韓國古代史探究』3, 2009b ;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조범환, 「新羅 下代 洪陟禪師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고려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桐裏山門에 대해서는 일찍이 최병헌·서운길·이용범 등이 風水地理說을 살피하면서 道誥을 주목하였다.⁸⁷⁾ 1980년대에 들어와 김두진 등에 의해 桐裏山門과 道誥의 선사상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고,⁸⁸⁾ 도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⁸⁹⁾ 1990년대에도 『道誥研究』가 출판되었다.⁹⁰⁾

의 實相山門의 개창과 鐵佛 조성, 『新羅史學報』6, 2006;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일담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87) 崔柄憲, 앞의 논문, 1975b; 徐閔吉, 「道誥과 그의 裨補思想」, 『韓國佛敎學』1, 1975; 徐閔吉, 「道誥 裨補思想의 淵源」, 『佛敎學報』13, 1976; 李龍範, 「風水地理說」, 『한국사』6, 國史編纂委員會, 1975.

88) 金杜珍,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風水地理說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57, 1988; 李龍範, 「風水地理說」, 『韓國史論』2, 國史編纂委員會, 1981; 崔柄憲, 「高麗建國과 風水地理說」, 『韓國史論』18, 國史編纂委員會, 1988.

89) 靈巖郡,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金知見, 「沙門道誥像素描」,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朴漢高, 「高麗建國과 道誥國師」,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李龍範, 「道誥의 地理說과 唐僧一行禪師」,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徐閔吉, 「道誥國師의 生涯와 思想」,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崔柄憲, 「道誥의 生涯와 風水地理說」,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崔昌祚, 「道誥國師의 風水地理思想 解釋」,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梁銀容, 「道誥國師 裨補寺塔說의 研究」,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秋萬鎬, 「羅末麗初의 桐裏山門」,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李準坤, 「道誥傳說의 變異와 形成」,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黃壽永, 「玉龍寺 先覺國師碑」,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成春慶, 「道誥國師와 관련한 遺物 遺蹟」, 『先覺國師 道誥의 新研究』, 三和文化社, 1988.

90) 金知見, 「道誥의 沙門像」, 『道誥研究』, 民族社, 1999; 成春慶, 「道誥國師와 관련한 文化遺蹟」, 『道誥研究』, 民族社, 1999; 李光濬, 「道誥國師와 道誥寺」, 『道誥研究』, 民族社, 1999; 許興植, 「高麗中期 四聖과 先覺國師碑의 意義」, 『道誥研究』, 民族社, 1999; 鄭性本, 「先覺國師 道誥 研究-崔惟淸의 道誥碑文 再考察-」, 『道誥研究』, 民族社, 1999; 白雲, 「道誥國師研究-崔惟淸碑를 중심으

2000년대에 들어와 조범환이 慧徹, 한태일이 道誥과 慶甫의 생애와 선사상, 이경복이 大安寺의 사원경제 등을 다루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⁹¹⁾ 道誥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⁹²⁾ 동리산문은 允多의 大安寺계는 고려와, 慶甫의 玉龍寺계는 후백제와 연결되었다. 이들의 정치적 지향과 선사상·현실인식의 상관성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도선에 대해서는 1988년, 1996년, 2003년에 걸쳐 꾸준히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鳳林山門에 대해서는 1970년대 최병헌이 김해의 호족과 鳳林山門 등의 선승을 주목하였고,⁹³⁾ 1990년대 임영기가 玄冕, 조범환이 審希를 검토하였다.⁹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김혜완·장덕호·김용선 등은 현옥·審希·璨

로-」, 『道誥研究』, 民族社, 1999 ; 金井吳, 「道誥實錄과 道誥의 誤解」, 『道誥研究』, 民族社, 1999 ; 梁銀容, 「道誥國師와 韓國佛教」, 『道誥研究』, 民族社, 1999 ; 李容九, 「道誥 이전-그의 쓰지 않은 사상-」, 『道誥研究』, 民族社, 1999 ; 崔柄憲, 「道誥의 風水地理說과 高麗의 建國理念」, 『道誥研究』, 民族社, 1999 ; 崔昌祚, 「韓國 風水地理說의 構造와 原理-道誥風嗽를 중심으로-」, 『道誥研究』, 民族社, 1999.

91) 이경복, 「新羅末-高麗初 大安寺의 田莊과 그 經營」, 『梨花史學研究』30, 2003 ; 이덕진, 「新羅末 桐裏山門에 대한 연구」,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 曹凡煥, 「新羅 下代 慧徹선사와 桐裏山門의 開創」, 『民族文化論叢』34, 2006 ; 韓太逸, 「慶甫와 그의 曹洞禪思想」, 『韓國古代史研究』42, 2006 ; 韓太逸, 「道誥의 생애와 唯心論的 禪思想」, 『韓國學論叢』30, 2008.

92) 曹凡煥 편, 『공덕과 장엄』, 영암군·도선국사연구소, 2003 ; 한기문, 「新羅末期 道誥의 出家와 佛教界 動向-靈岩 地域을 중심으로-」, 『공덕과 장엄』, 영암군·도선국사연구소, 2003 ; 조범환, 「新羅末 道誥國師 出家 場所에 대한 再檢討」, 『공덕과 장엄』, 영암군·도선국사연구소, 2003 ; 이계표, 「道誥 入唐說의 檢討」, 『공덕과 장엄』, 영암군·도선국사연구소, 2003 ; 표인주, 「도선국사 전설의 불교 문화사적인 가치와 현대적 활용」, 『공덕과 장엄』, 영암군·도선국사연구소, 2003.

93) 崔柄憲, 앞의 논문, 1978a.

94) 林暎基, 「鳳林山門의 法系와 그 問題點들」, 『韓國佛敎學』17, 1992 ; 曹凡煥, 「新羅末 鳳林山門과 新羅王室」, 『震檀學報』78, 1994 ; 金相激, 「新羅末 舊加耶

幽로 이어지는 高達寺의 사상적 흐름을 살폈다.⁹⁵⁾ 배상현은 심희,⁹⁶⁾ 조범환은 玄旻,⁹⁷⁾ 이인재·정동락은 忠湛,⁹⁸⁾ 구산우는 김해·창원의 호족과 선승에 대해 검토하였다.⁹⁹⁾ 봉림산문은 玄旻-審希-璨幽·忠湛 등으로 이어지는 선승들의 정치적 선택이 달랐는데, 그 배경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聖住山門에 대해서는 1970년대 김두진이 無染의 선사상을 분석하였다.¹⁰⁰⁾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조범환은 무염과 聖住山門을 검토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¹⁰¹⁾ 특정 산문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고찰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상으로 의미가 크다. 또 공동연구 성과인 『성주사와 낭혜』도 출간되었다.¹⁰²⁾ 정성분·최현각은 무염의 선사

圈의 金海 豪族勢力, 『震檀學報』82, 1996.

- 95) 김용선, 『玄旻·審希·璨幽와 여주 고달사』, 『한국중세사연구』21, 2006 ; 김혜완, 『고달사의 불교사적 고찰』, 『高達寺址』1, 경기도박물관, 2002 ; 張德浩, 『羅末麗初 高達禪院의 形成』, 『東峰申千湜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경인문화사, 2005.
- 96) 배상현, 『眞鏡 審希의 활동과 鳳林山門』, 『史學研究』74, 2004.
- 97) 조범환, 앞의 논문, 2008.
- 98) 李仁在, 『禪師 忠湛(869~940)의 生涯와 忠湛碑 磨滅字 補完 收容 問題』, 『原州金石文集』2, 2009 ; 정동락, 『忠湛(869~940)의 생애와 활동』, 『新羅史學報』18, 2010.
- 99)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25, 2010.
- 100) 金杜珍, 앞의 논문, 1973.
- 101) 曹凡煥,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7 ; 曹凡煥, 앞의 논문, 1998a ; 曹凡煥, 앞의 논문, 1998b ; 曹凡煥, 앞의 논문, 2000 ; 曹凡煥, 앞의 논문, 2001 ; 曹凡煥, 앞의 책, 2001.
- 102)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 金壽泰, 『烏合寺』,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南東信, 『聖住寺와 無染에 관한 자료 검토』,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曹凡煥, 『朗慧無染의 求道行과 南宗禪 體得』,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金英美, 『朗慧無染의 禪思想』,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李喜寬, 『聖住寺와 金陽-聖住寺의 經濟的 基盤에 대한 一檢討-』,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 趙仁成, 『朗慧和尚塔碑銘의 撰述과 崔致遠』,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상, 최인표는 무염의 현실인식, 양승윤은 聖住寺碑 등의 자료, 근등호일은 聖住寺를 통한 왕경인의 교역거점 확보에 대해 검토하였다.¹⁰³⁾ 성주산문과 무염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여타의 선문에 비해 연구 성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다.

崛山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신천식·방동인·김두진 등은 굴산문과 金周元계 세력의 관계에 주목하였다.¹⁰⁴⁾ 1990년대에는 김영태·김갑동·김홍삼의 연구로 이어졌다.¹⁰⁵⁾ 2000년대에 들어와 김홍삼은 굴산문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⁰⁶⁾ 그 결과를 박사학위논문인 『羅末麗初 崛山門 研究』로 제출하였는데, 굴산문과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교류관계를 밝혔다.¹⁰⁷⁾ 그 후 김홍삼은 굴산문의 선사상, 開淸과 단일세력, 梵日과 金周元계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¹⁰⁸⁾ 그리

- 103) 近藤浩一, 「9세기 중엽 聖住寺와 신라 王京人의 서해안 진출」, 『新羅史學報』 10, 2006 ; 梁承律, 「金立之의 『聖住寺碑』」, 『古代研究』6, 1998 ; 梁承律, 「聖住山門 관련 史料의 검토」, 『古代研究』7, 1999 ; 鄭性本, 「新羅 禪宗과 鈎讖說」, 『釋山 韓鍾萬 博士 華甲紀念 韓國思想史論文集』, 圓光大出版局, 1991 ; 鄭性本, 「新羅禪宗의 禪思想」 앞의 책, 1995 ; 鄭性本, 앞의 논문, 1995 ; 崔仁杓, 앞의 논문, 1996b ; 崔玄覺, 「大朗慧無染의 無舌土論」, 『普照思想』9, 1995.
- 104) 金杜珍, 「新羅下代 崛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省谷論叢』17, 1986 ; 方東仁, 「崛山寺에 대한 研究와 展望」, 『古文化』24, 1984 ; 方東仁, 「崛山寺와 梵日에 대한 再照明」, 『臨瀛文化』24, 2000 ; 申千湜, 「韓國佛教思想에서 본 梵日의 位置와 屈山寺의 歷史性 檢討」, 『嶺東文化』창간호, 關東大 嶺東文化研究所, 1980.
- 105) 金甲童, 「溟洲勢力」,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1990 ; 金煥泰, 「梵日의 禪과 華嚴」, 『佛教思想史論』, 民族社, 1992 ; 金興三, 「羅末麗初 閣崛山門과 政治勢力의 動向」, 『古文化』50, 1997.
- 106) 金興三, 「羅末麗初 閣崛山門의 淨土信仰과 華嚴思想」, 『江原文化研究』19, 2000 ; 김홍삼, 「나말려초 굴산문 신앙의 여러 모습」, 『역사와 현실』41, 2001.
- 107) 金興三,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2.
- 108) 金興三, 「羅末麗初 崛山門 開淸과 政治勢力」, 『한국중세사연구』15, 2003 ; 김홍삼, 「羅末麗初 崛山門의 禪思想」, 『白山學報』66, 2003 ; 金興三, 「신라말 崛山門 梵日과 金周元系 관련설의 비판적 검토」, 『韓國古代史研究』50, 2008 ;

고 이규대·이경복·정동락·조범환 등이 범일의 선사상과 김주원계와의 관계, 범일의 굴산문 개창 등을 다루었다.¹⁰⁹⁾ 굴산문에 대해서는 현재 범일과 김주원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이견이 노정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범일이 김주원계와 무관하다는 연구 성과가 제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다.

獅子山門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박정주와 최인표가 折中과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주목하였다.¹¹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사자산문의 형성과 전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영문·박문기·최연식 등이 사자산문의 성립과정을 다루었으며,¹¹¹⁾ 조범환은 道允을 살폈다.¹¹²⁾ 노용필·이인재는 사자산문의 사회적 기반과 정치세력에 대해 다루었다.¹¹³⁾ 사자산문에 대해서는 선문의 개창과 중심사찰 문제, 비움기를 통한 정치세력과의 관계 등이 검토되었다. 특히, 禪場과 禪門의 개념차이에 따른 사자산문의 개창조

신호철, 「신라말 고려초의 강릉호족 王順式」, 『충북사학』25, 2010.

109) 李墩馥, 앞의 논문, 2003 ; 李揆大, 「屈山寺 關聯 新種資料 紹介와 研究課題의 設定」, 『屈山寺址 浮屠 學術調查報告書』, 1999 ; 李揆大, 「梵日과 江陵端午祭의 主神인 國師城隍神」, 『臨瀛文化』24, 2000 ; 정동락, 「通曉 梵日(810~889)의 生涯에 대한 再檢討」, 『民族文化論叢』24, 2001 ; 정동락, 「梵日(810~889)의 선사상」, 『大丘史學』68, 2002 ; 曹凡煥, 「新羅 下代 梵日禪師와 岫山門의 개창」, 앞의 책, 2008.

110) 朴貞柱, 앞의 논문, 1994 ; 崔仁杓, 「羅末麗初 獅子山門의 動向」, 『韓國傳統文化研究』11, 1996c.

111) 朴文基(宗浩), 「師子山門의 形成과 思想」, 『한국불교학』49, 2007 ; 申永文, 「羅末麗初 師子山門의 思想과 그 性格」, 『北岳史論』9, 2002 ; 최연식, 「師子山 禪門의 성립과정에 대한 재검토」, 『佛敎學研究』21, 2008.

112) 曹凡煥, 「新羅 下代 道允禪師와 獅子山門의 개창」, 『新羅史學報』10, 2007.

113) 盧鏞弼, 「신라하대 선종 사자산문의 사회적 기반」, 『韓國古代社會思想史探究』, 韓國史學, 2007 ; 盧鏞弼, 「혜중 즉위초의 정치세력-홍녕사 「징효대사비문」의 음기 분석을 중심으로-」, 『新羅高麗初政治史研究』, 韓國史學, 2007 ; 李仁在, 「충주 정토사 玄暉와 영일 홍녕사 折中-고려 혜중대 정변과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49, 2008.

와 성립시기, 중심사원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점은 9산선문의 성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曠陽山門에 대해서는 김영태가 1970년대 말 兢讓의 법계 변신을 다루었다.¹¹⁴⁾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曠陽山門의 宗系 변화와 선사상, 道憲, 兢讓에 대해 살폈다. 김두진은 희양산문의 선종사상, 조범환은 道憲, 이인재는 兢讓을 주목하였다.¹¹⁵⁾ 兢讓의 법계 변신의 의미, 北宗禪 혹은 漸禪 사상으로 유학사상과 교섭하는 사상적 경향, 兢讓의 대장경 연구 등이 조명되었다. 앞으로 희양산문과 여타 남종선 선문과의 사상적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겠다.

須彌山門에 대해서는 김두진은 利嚴 등 海東四無畏士와 王建의 결합, 조범환은 利嚴의 수미산문 개창과정을 살폈다.¹¹⁶⁾ 수미산문은 고려왕실의 지원으로 개창했으므로, 호족보다는 고려왕실의 후원이 중요하였다. 초기 선승들이 馬祖 道一의 법을 이은 것에 비해, 利嚴 등 四無畏士는 石頭 希遷 문하에서 수학한 차이가 있다. 이는 후삼국의 전개라는 시대상황과 중국의 선사상 경향의 변화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점에 대해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9산문에 속하지 않은 선승들도 검토되었다. 雙溪寺 禪門의 慧昭에 대해서는 그간 奝貝의 전수자로 주목해 왔다.¹¹⁷⁾ 그러다가 김정권이 전

114) 金煥泰, 앞의 논문, 1979a.

115) 金杜珍, 「曠陽山門의 성립과 宗系의 변화」 『清溪史學』18, 2003a ; 金杜珍, 「나말러초 曠陽山門의 禪宗사상」 『韓國學論叢』26, 2003b ; 李仁在, 「선사(禪師) 공양(兢讓: 878~956)의 생애와 대장경(大藏經)」 『韓國史研究』131, 2005 ; 曹凡煥, 「新羅 下代 道憲선사와 曠陽山門의 개창」 『新羅史學報』4, 2005.

116) 金杜珍, 「고려초 四無畏士와 須彌山門의 개창」 『韓國學論叢』27, 2005 ; 金杜珍, 「고려초 四無畏士의 선종사상」 『韓國學論叢』28, 2006 ; 曹凡煥, 「高麗初 利嚴禪師와 須彌山門의 개창」 앞의 책, 2008.

117) 권오성, 「진감선사와 신라의 범패」 『진감선사의 역사적 재조명』, 조계종 총무원, 2000 ; 김승찬, 「진감선사와 쌍계사 전설」 『韓國民族文化』15, 2000 ;

론적으로 다룬 이후 김복순·김두진·한기문 등이 혜소의 선사상과 회양산문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¹¹⁸⁾ 혜소의 법맥은 고려초 祐讓에 이르면 礪陽山門으로 연결되는데 남종선 일색의 시대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과 혜소의 선사상 속에 北宗禪이 포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혜소와 회양산문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五冠山 禪門의 順之는 1970년대 김두진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었다.¹¹⁹⁾ 1980년대에 정성본·현람(최창술)이 선사상을 조명하였고,¹²⁰⁾ 2000년대에 들어와 이병욱이 선사상을, 정동락이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재검토 하였다.¹²¹⁾ 순지는 王建先代 뿐만 아니라 신라왕실과도 결연하고 있어, 그의 선사상이 지닌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神行의 北宗禪 사상과¹²²⁾ 淨衆宗을 정립한 無相선사도 주목하였다.¹²³⁾ 신라 하대 선종사에

박범훈, 「진감선사 법패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 『진감선사의 역사적 재조명』, 조계종 총무원, 2000 ; 白一亨, 「新羅 眞鑑禪師 梵唄에 관한 小考」, 『東方學』6, 東洋古典研究所, 2000 ; 최현, 「眞鑑禪師의 梵唄에 관한 既存 研究 批判」, 『韓國民族文化』15, 2000.

118) 김두진, 「眞鑑禪師塔碑와 慧昭의 禪宗思想」,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金福順, 「眞鑑禪師(774~850)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 『韓國民族文化』15, 2000 ; 金楨權, 「新羅 下代 眞鑑禪師 慧昭의 身分과 活動-雙溪山門의 成立과 관련하여-」, 『湖西史學』27, 1999 ; 韓基汶, 「新羅 下代 眞鑑禪師의 活動과 梵唄 教化의 意義」, 『大丘史學』89, 2007.

119) 金杜珍, 앞의 논문, 1975a ; 金杜珍, 앞의 논문, 1975b.

120) 鄭性本, 「順之의 五冠山禪門과 滄仰宗禪風」, 앞의 책, 2005 ; 玄覽(崔昌述), 「순지의 성불관-삼편성불론을 중심으로-」,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121) 이병욱, 「순지(順之)의 선사상-천태 교관사상과 순지 선사상의 공통점 연구-」,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혜안, 2002 ; 鄭東樂, 「了悟 順之의 생애에 대한 재검토」, 『新羅史學報』14, 2008.

122) 曠승훈,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중대 말 하대 초의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新羅文化』34, 2009 ; 呂聖九, 「神行의 生涯와 思想」, 『朴永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탐구당, 1992 ; 鄭善如, 「新羅 中代末 下代初 北宗禪의 受容-「丹城斷俗寺神行禪師碑文」을 중심으로-」, 『韓

대한 관심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IV. 자료정리와 분석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선승들의 비문과 같은 금석 문과 『祖堂集』 등의 문헌자료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와 연구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선, 선승들의 비문에 대한 정리와 역주작업이 이루어졌다. 그간 이 시기 선승비문은 『韓國金石總覽』, 『韓國金石遺文』, 『韓國金石全文』¹²⁴⁾ 등으로 정리되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선승들의 비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역주작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1970년대 이후 崔致遠의 ‘四山碑文’에 대해 역주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¹²⁵⁾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선승들의 비문을 교감

國古代史研究』12, 1997 ; 정선여, 「신라 하대 북종선의 동향」 『新羅史學報』 18, 2010 ; 추만호, 「신행의 북종선 수용」 앞의 책, 1992.

- 123) 李種益, 「中國禪學史上 新羅 無相大師의 地位」 『韓國佛敎學』1, 1975 ; 李種益, 「中國禪學史上 新羅 無相大師의 地位와 그 傳燈譜」 『文山金三龍博士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1985 ; 鄭性本, 「唐土의 新羅僧 無相大師의 生涯와 思想」 『韓國思想史學』3, 1990 ; 鄭性本, 「淨衆 無相禪師 研究」 『鏡海法印 申正午 博士 華甲紀念 佛敎思想論叢』, 1991 ; 印幻(蔡澤洙), 「初期 禪宗의 形成과 無相禪師의 活動」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敎文化思想史』上, 1992 ; 불교영상학회 편, 『淨衆無相禪師』, 불교영상학회보사, 1993.
- 124)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 1919 ;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 許興植, 『韓國金石全文』古代篇·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 125) 曠승훈, 앞의 책, 2005 ; 金文基, 「崔致遠의 四山碑銘 研究-實態調査와 內容 및 文體分析을 中心으로-」 『韓國의 哲學』15, 경북대 퇴계연구소, 1987 ; 孫煥一, 「고운 최치원의 서예-眞鑑禪師大空塔碑를 중심으로-」 『신라 최고의 사상이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01 ; 이상현 율김, 『고운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 李佑成 校譯, 『新羅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95 ; 淨光, 『智證大師碑銘小考』, 經書院, 1992 ; 崔英成, 『譯註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역주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우선,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한국고대사회연구소)의 『역주 한국고대 금석문』이¹²⁶⁾ 간행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뒤이어 李智冠의 주도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과¹²⁷⁾ 한국역사연구회 나말려초 금석문연구반의 『역주 나말려초 금석문』¹²⁸⁾ 등이 비슷한 시기에 출판되었다. 최근 들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한국금석문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선승비문의 원문과 해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¹²⁹⁾ 이러한 선승비문의 교감역주작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금석문 자료 일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선승비문의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되었다.¹³⁰⁾

그와 함께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선승들의 비문과 음기 등에 대한 자료발굴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채상식의 法鏡대사비와 음기에 대한 분석,¹³¹⁾ 허홍식의 자료소개와 분석은 대표적인 성과이다.¹³²⁾ 그리고 秀澈

1987 ; 崔英成, 『崔致遠全集 1-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998 ; 崔英成, 『崔致遠全集 2-孤雲文集-』, 亞細亞文化社, 1999 ; 崔濬玉 編, 『國譯孤雲先生文集』上·下, 孤雲先生文集編纂會, 1972:3 ; 洪震杓 譯, 『四山碑文』, 『韓國의思想大全集』3, 同和出版社 1972.

126)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제3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27)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伽山文庫, 1993 ;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 伽山文庫, 1994.

128) 한국역사연구회, 『譯註羅末麗初金石文』上·下, 혜안, 1996.

129)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130) 김영미, 앞의 논문, 1996 ;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돌에 새겨진 사회사-』, 일조각, 2004 ; 이재범, 『나말려초 선사비문 연구현황』, 『역사와 현실』56, 2005 ; 정병삼, 『高麗 高僧 碑文 譯註의 과제와 방향』, 『고려시대연구』1, 2000 ; 추만호, 『새김글(금석문)의 자료적 성격과 이용법』, 『역사와 현실』4, 1990 ; 許興植, 『金石學史의 試論』, 앞의 책, 1986.

131) 金壽泰, 『高麗初 忠州地方의 豪族-忠州劉氏를 중심으로-』, 『忠淸文化研究』

和尚비,¹³³⁾ 弘覺利觀비,¹³⁴⁾ 澄曉折中비,¹³⁵⁾ 智證道憲비,¹³⁶⁾ 片雲和尚부도,¹³⁷⁾ 慈寂洪俊비음기,¹³⁸⁾ 眞空大師비편,¹³⁹⁾ 先覺道誥비,¹⁴⁰⁾ 眞空忠湛비,¹⁴¹⁾ 金立之撰 聖住寺碑와 성주산문 관련 자료¹⁴²⁾ 등이 새로 소개되거

-
- 1, 1989 ; 蔡尙植, 앞의 논문, 1982 ; 蔡尙植, 『羅末麗初 忠州 지역의 豪族과 禪宗-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 『藥城文化』16·17, 1996 ; 채상식, 『충주 정토사지 범경대사비의 음기-나말여초 충주지역의 호족과 선종-』 『충북의 석조미술』, 2000.
- 132) 許興植, 『高麗佛敎史에 관한 새로운 金石文』 앞의 책, 1986. 허흥식은 弘覺선사비, 惠居국사비, 眞觀선사비, 寂然국사비, 朗圓대사비음기, 先覺국사비음기 등을 소개 분석하였다.
- 133) 추만호, 앞의 논문, 1991 ; 崔英成, 『崔致遠 思想 形成의 歷程에 대한 考察』 『東洋古典研究』10, 1998 ; 최영성, 『孤雲思想의 脈』, 심산출판사, 2008 ; 정선중, 앞의 논문, 2009.
- 134) 權憲永, 앞의 논문, 1992 ; 權憲永, 앞의 논문, 1998 ; 權憲永, 앞의 논문, 2008a ; 權憲永, 앞의 논문, 2008b ; 權憲永, 앞의 논문 2009 ; 鄭永鎬, 『禪林院弘覺禪師塔의 推定』 『李瑄根博士古稀紀念 韓國學論叢』, 1974.
- 135) 朴貞柱, 앞의 논문, 1994 ; 李鍾旭, 『高麗初 940年代의 王位繼承과 그 政治의 性格』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 鄭永鎬, 『新羅 獅子山 興寧寺址 研究』 『白山學報』7, 1969a ; 崔仁杓, 앞의 논문, 1996c.
- 136) 金福順, 『고려의 崔致遠 만들기- 『지증대사비』의 건립을 중심으로-』 『新羅文化』32, 2008 ; 金福順, 『최치원의 『지증대사적조탑비문』 비교 연구』 『新羅文化』35, 2010.
- 137) 金包光, 『片雲塔과 後百濟의 年號』 『佛敎』49, 1928 ; 裴宰勳, 앞의 논문, 2009.
- 138) 南豊鉉, 『高麗初期 帖文과 그 史讀에 대하여-體泉 鳴鳳寺 慈寂禪師碑의 陰記의 解讀-』 『古文書研究』5, 1994 ; 崔仁杓, 앞의 논문, 1996a ; 하일식, 『고려 초기 지방사회의 주관(州官)과 관반(官班)』 『역사와 현실』34, 1999. 하일식은 충담, 홍준, 현휘, 절중비 음기를 새롭게 판독하였다.
- 139) 노대환, 『毘盧寺 眞空大師寶法塔碑片 발굴과 그 내용』 『목간과 문자 연구』2, 한국목간학회, 2008 ; 동양대학교 박물관, 앞의 (약)보고, 2008 ; 권순철·김현정, 앞의 논문, 2008 ; 정동락, 앞의 논문, 2009a.
- 140) 黃壽永, 앞의 논문, 1988.
- 141) 李仁在 편,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조동원, 『1972년 흥법사비 탁본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 이동국, 『흥법사

나 재검토되었다. 그 외에 도선과 관련된 금석문, 문헌자료, 설화 등의 자료를 모은 자료집과¹⁴³⁾ 지리산권의 금석문이 정리되었고,¹⁴⁴⁾ 금석문을 활용한 신라사 연구도 진행되었다.¹⁴⁵⁾

선승 비문과 함께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기본자료인 『祖堂集』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이루어졌다. 『祖堂集』에는 道憲과 利嚴을 제외한 7개 산문의 개창조와 順之의 행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952년 경 중국에서 찬술되었으나 산실되었고, 우리나라로 전해져 『高麗大藏經』의 外藏에 편입되어 改板되었다. 『祖堂集』은 동아시아 선종사를 기술한 현존 最古의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5년 합천 海印寺의 판본이 소개되면서 해제가 이루어졌고,¹⁴⁶⁾ 번역과 역주작업도 진행되었다.¹⁴⁷⁾ 『祖堂集』에 대

(興法寺)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 서체(書體) 고(攷)」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 김대식, 「興法寺碑 磨滅字 復元和 關聯된 몇 가지 問題」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 이인재, 「禪師 忠湛(869~940)의 生涯와 忠湛碑 磨滅字 補完 收容 問題」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 이인재, 「흥법사(興法寺) 진공대사탑비(眞空大師塔碑) 비문(碑文) 번역문(翻譯文)과 각주(脚註)」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 이준성·이현경, 「흥법사비 고감본(양기 및 음기)」 『原州金石文集』2, 原州市, 2009.

142) 金昌鎬, 「新羅 無染和尚碑의 得難條 해석과 건비 연대」 『新羅文化』22, 2003 ; 南東信, 앞의 논문, 2001 ; 南東信, 「聖住寺 無染碑의 得難條에 대한 考察」 『韓國古代史研究』28, 2002 ; 梁承律, 앞의 논문, 1998 ; 梁承律, 앞의 논문, 1999 ; 趙仁成, 앞의 논문, 2001 ; 黃壽永, 「新羅 聖住寺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 『考古美術』100, 1968.

143) 曹凡煥 편, 『穢土에서 정도로』, 영암군·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 2002 ; 曹凡煥 편, 앞의 책, 2003.

144) 김아네스 편, 『지리산권의 금석문』,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009.

145) 金杜珍 외, 『금석문을 통한 신라사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46) 閔泳珪, 「影印 祖堂集引」 『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中央圖書出版社, 1965 ; 柳田聖山, 「祖堂集 解題」 『曉城趙明基博士追慕 佛教史學論文集』, 東國大出版部, 1988.

147) 譯經委員會, 『祖堂集』1-2, 東國譯經院, 1986 ; 金월운, 『祖堂集』1-2, 동국역경

해서는 고려인에 의한 취사선택의 가능성이 강조되거나,¹⁴⁸⁾ 개관할 때 신라 승려들의 전기를 추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⁴⁹⁾ 또, 그 구성과 각성 배경, 입전된 신라고려의 고승의 행적이거나,¹⁵⁰⁾ 『無染傳』의 내용이 검토되었다.¹⁵¹⁾ 최근에는 『祖堂集』의 집성자인 靜과 筠 두 선사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다.¹⁵²⁾ 아울러 『祖堂集』 등 초기 선어록에 나타난 禪師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¹⁵³⁾

고려후기 眞靜國師 天頤이 찬한 『禪門寶藏錄』도 이 시기 선승들의 선사상을 밝히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책에는 도의와 智遠僧統과의 문답, 無染의 無舌土論, 梵日과 진성여왕의 문답인 眞歸祖師說 등이 실려 있다. 그간 『禪門寶藏錄』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라 하대의 선사상을 검토하였는데, 당시 선승들이 선종의 우위의 敎相判釋을 시도한 자료로 파악되었다.¹⁵⁴⁾ 그러다가 『禪門寶藏錄』의 무설토론과 진귀조사설 등은 『祖堂集』이나 당대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선의 우위와 敎外別傳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假託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¹⁵⁵⁾ 이에 따라 최근에는 『禪門寶藏錄』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¹⁵⁶⁾ 앞으로 이 책에 수록된

원 ; 法藏, 『祖堂集 註解』, 東國譯經院, 1999.

148) 金杜珍, 앞의 논문, 1975a ; 金杜珍, 앞의 논문, 1975b ; 鄭性本, 앞의 책, 1995.

149) 椎名宏雄, 『祖堂集의編成』, 『宗學研究』21, 1979 ; 송인성, 『言語 측면에서의 『祖堂集』新羅·高麗 禪師 部分의 後代 編入 與否』,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150) 韓基汶, 『『祖堂集』과 新羅·高麗 高僧의 行蹟』, 『한국중세사연구』6, 1996.

151) 南東信, 앞의 논문, 2001.

152) 高영섭, 『고려 신개판(新開版) 『祖堂集』집성자』, 『한국불학사』고려시대편, 연기사, 2005.

153) 任炳權, 『초기 선 어록에 나타난 신라고려 선사』, 『韓國禪學』2, 한국선학회, 2001.

154) 金杜珍, 앞의 논문, 1973 ; 金杜珍, 앞의 논문, 1986 ; 金杜珍, 앞의 논문, 1996 ; 金杜珍, 앞의 논문, 1997b ; 金興三,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2.

155) 추만호, 앞의 책, 1992 ; 鄭性本, 앞의 논문, 1992 ; 鄭性本, 앞의 책, 1995.

156) 曹凡煥, 앞의 책, 2001.

신라 하대 선승들의 선사상 관련 자료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사원에서 전해오던 사적기인 『聖住寺事蹟』,¹⁵⁷⁾ 『泰安寺事蹟』,¹⁵⁸⁾ 『鳳巖寺事蹟記』,¹⁵⁹⁾ 『迦智山寶林寺事蹟』,¹⁶⁰⁾ 『智異山實相寺事蹟』,¹⁶¹⁾ 『禪門祖師禮懺文』¹⁶²⁾ 등도 활용되었다.

한편, 신라 하대 선종 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의 조사연구는 당시 선종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고학 분야에서 선종 사원과 寺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원주의 거둔사(안락사)를 비롯해, 여주 고달사지, 강릉 굴산사지, 산청 단속사지, 장흥 보림사, 창원 봉림사지, 양양 서림원지, 보령 성주사지, 남원 실상사, 화순 쌍봉사, 광양 옥룡사지, 여주 원향사지, 양양 진전사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그것이다.¹⁶³⁾ 그와 함께 불교미술사 분야에서 사지와 철불, 승탑

157) 黃壽永, 『(資料)崇巖山聖住寺事蹟』, 『考古美術』98, 1968 ; 梁承律, 앞의 논문, 1999 ; 南東信, 앞의 논문, 2001 ; 曹凡煥, 앞의 책, 2001.

158) 金杜珍, 앞의 논문, 1988.

159) 金杜珍, 앞의 논문, 2003.

160) 김두진, 앞의 논문, 2010.

161) 黃壽永, 『知異山 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108, 1970 ; 黃壽永, 『知異山 實相寺事蹟(下)』, 『考古美術』109, 1971.

162) 許興植, 앞의 논문, 1983.

163) 江陵大學校 博物館, 『屈山寺址浮屠 學術調查報告書』, 1999 ; 江原文化財研究所, 『襄陽 陳田寺址 發掘調查報告書』, 2004 ;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 屈山寺址 發掘調查報告書』, 2006 ;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 神福寺址』, 2006 ; 京畿道 博物館, 『高達寺址』, 2002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實相寺 發掘調查報告書』Ⅱ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昌原鳳林寺址』, 2000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2, 『山淸 斷俗寺址 發掘調查 報告書』, 2006 ; 畿甸文化研究院, 『元香寺』, 2003 ; 畿甸文化研究院, 『高達寺址』Ⅱ, 2007 ; 檀國大學校 博物館, 『陳田寺址 發掘報告』, 1989 ; 東國大學校 發掘調查團-南原郡, 『實相寺 金堂 發掘調查報告書』, 1993 ; 木浦大學校 博物館, 『雙峰寺』, 1996 ; 文明大, 『禪林院址 發掘調查略報告』, 『佛教美術』10, 1991 ; 順天大學校 博物館, 『光陽 玉龍寺址』Ⅰ~Ⅲ, 1995-2006-2007 ; 順天大學校 博物館-迦智山寶林寺, 『迦智山寶林寺』, 1998 ; 順天大學校 博物館-迦智山寶林寺, 『寶林寺 大寂光殿과 鐵佛』,

(부도, 탑비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축적되었다.¹⁶⁴) 사지의 발굴을 통한 선종 사원의 구체적인 존재양상과 불교 미술 양식과 시대 상황을 결부시키는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1998 ; 原州市·翰林大學校 博物館, 『居頓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000 ; 윤용희, 『驪州 元香寺址의 歷史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 『畿甸考古』1, 2002 ; 忠南大學校 博物館, 『整備·復元을 爲한 聖住寺址 1~6차 發掘調査 報告』, 1997.

- 164) 權兌遠, 「聖住寺址의 史略에 관하여」 『湖西史學』19-20, 1992 ; 문명대, 「신라 철불 조성 문제와 實相寺 철아미타불좌상」 『한국의 불상 조각 3-원음과 적조미-』, 예경, 2003 ; 蘇在龜, 「高達院址 僧塔 編年の 再考」 『美術資料』52, 1993 ; 蘇在龜, 「新羅下代 僧塔造營史 研究」 『美術資料』67, 2001 ;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 嚴基杓, 「新羅時代 浮屠와 塔碑가 건립된 僧侶들의 지위와 活動」 『先史와 古代』31, 2009 ; 李殷昌, 「保寧 聖住寺址 石塔考」 『史學研究』21, 1969 ; 鄭永鎬, 「原州의 寺蹟 : 興法·法泉·居頓」 『考古美術』1, 1960 ; 鄭永鎬, 「襄陽 禪林院址에 對하여」 『考古美術』71, 1966 ; 鄭永鎬, 「新羅聖住寺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 『考古美術』100, 1968 ; 鄭永鎬, 앞의 논문, 1969a ; 鄭永鎬, 「襄陽 陳田寺址 遺蹟 調査」 『歷史教育』11-12 1969b ; 鄭永鎬, 앞의 논문, 1974 ; 鄭永鎬, 「月岳山 月光寺址 圓朗禪師大寶光禪塔에 對하여」 『考古美術』129-130, 1976 ; 鄭永鎬, 「高麗初期 石造浮屠研究」 『東洋學』10, 1980 ; 鄭永鎬, 「考古美術 첫걸음」, 學研文化社, 2000 ; 鄭永鎬, 「신라 도의국사 부도의 연구」 『新羅文化祭學術 論文集』24, 2003 ; 鄭永鎬, 앞의 책, 2005 ; 秦弘燮, 「奉化 太子寺址 調査概要」 『考古美術』65, 1965 ; 崔聖銀, 「鳳林寺址 石造三尊佛像에 대한 고찰-후삼국 시대 조각의 一例-」 『佛教美術史學』1, 1995 ; 崔聖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44, 2002 ; 崔聖銀, 「전환기의 불교조각: 나말려초 불상의 새로운 경향」 『梨花史學研究』33, 2006 ; 崔聖銀, 앞의 논문, 2010 ; 崔完秀, 「신라 선종과 비로자나불의 출현」 『新東亞』6월호, 2001 ; 許亨旭, 「實相寺百丈庵석탑의 五方神像에 관한 고찰」 『미술사연구』 19, 2005 ; 洪性益, 앞의 논문, 2002 ; 黃壽永, 앞의 논문, 1968.

V. 맺음말

이상에서 신라 하대 선종사의 연구동향을 시기별, 산문별로 정리하고, 자료의 정리와 분석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료정리 차원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가 되면서는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보면 소위 지방호족과 왕실 등 정치세력과의 관계, 선종과 화엄종의 관계와 위치정립 문제, 9山門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안으로 禪宗說의 제시, 中世불교와 관련된 시대구분 문제 등과 같은 여러 논쟁들이 촉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신라 하대 사상사 연구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선종사에 대해 몇 편의 글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꾸준히 성과를 제출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구 성과의 수적인 증가와 축적에 비해 전문 연구자의 인적 풀(Pool)이 부족한 셈이다. 신라 하대 선종사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1970~80년대의 제1세대 연구자인 김두진·최병헌·허홍식·고익진, 1990년대의 제2세대인 추만호·정성본, 1990년대 말 이후 최근까지의 제3세대인 조범환·최인표·김홍삼 등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의 대체적인 경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김두진, 최병헌 등에 의해 教宗은 신라왕실, 禪宗은 지방호족의 사상적 기반이었다고 정리되었다. 선종은 지방호족, 교종은 왕실의 종교라는 인식은 이후 유력한 통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선종과 일반민, 신라왕실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근래에는 선종과 왕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양자가 ‘호혜적’ 혹은 ‘탄력적’인 관계였다거나, 왕실과 중앙의 지원으로 선종산문이 개창되었다는 성과가 제출되고 있다. 더불어 신라 하대 불교계가 선종 일변도가 아니라 화엄종 등 교종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였고, 선승들도 敎禪을 竝立적인 관계로 인식하였음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는 신라 하대 선종의 宗派성립 문제, 9山門說의 실재 여부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禪宗說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선종산문의 지원세력으로 신라왕실이 새롭게 주목되었고, 교선의 관계를 병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선종의 전래와 관련된 불교사의 시대구분과 中世불교(宗派불교)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선종사의 시기구분 문제도 논의되었다. 또, 선승들의 현실인식과 사회개혁론, 聖住山門 등 개별산문과 선승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선종과 신라고려왕실은 물론 후백제·태봉과의 관계를 주목하여 관심이 확대되었다. 또 9산선문의 개창과정을 검토하여 지방보다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는 점도 추구되었다. 특히, 崛山門 迦智山門을 비롯해 개별 산문을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분석과 선승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신라 서남지역의 선종산문과 張保臯 세력과의 관계 등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선종과 관련한 기초자료의 정리와 연구도 지속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의 선승비문에 대한 교감과 역주는 선종사 연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아울러 신라 하대 선종 사원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유적유물에 대한 고고미술사 분야의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1970년대 1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선종은 지

방호족의 종교라는 성과가 도출되면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선종의 종파성립과 9산문의 실재 여부, 정치세력과의 관계, 敎禪의 위치정립 문제가 논의되었다. 1990년대에는 선종의 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사의 시대구분과 중세불교의 성격, 선승의 사회개혁론, 개별 산문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2000년대에는 선종과 신라왕실의 관계가 크게 부각되었고, 9산선문의 개별적인 검토와 선승들의 활동 분석, 신라西南지역 선종산문과 張保皐 세력과의 관계가 주목되었다. 특히, 신라 하대 선종사 연구는 정치세력과의 관련성, 선종과 교종(화엄종)과의 관계 등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문제가 당시 선종사를 밝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신라 하대 선종사의 연구동향을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그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다. 신라 하대의 선승들은 시대적 전환기에 현실을 고뇌하고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 知識人이었다. 따라서 선승들 자체에 대해 주목하여 그들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었고, 현실인식과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승들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하고, 생의 마디마다 나타나는 선택과 문제의식을 정리해야 한다. 그 방법론의 일환으로 신라 하대 선종사를 시대적 흐름과 관련하여 시기구분하고, 각 시기별 선승들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겠다.

【참고문헌】

1. 저서

-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고익진, 『韓國古代 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1989.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허흥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一潮閣, 1994.
정성본, 『新羅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조범환, 『朗慧無染과 聖住山門』,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7.
최인표, 『羅末麗初 禪宗佛敎政策 研究』, 효가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수태 등, 『성주사와 낭혜』, 서경문화사, 2001.
조범환, 『新羅禪宗研究-朗慧無染과 聖住山門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김홍삼, 『羅末麗初 崛山門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02.
김수태조범환, 『전라도 지역의 선종산문과 장보고 집단』, 재단법인 해상왕장보
고기념사업회, 2005.
정영호, 『道義國師와 陳田寺』, 學研文化社, 2005.
김두진, 『고려전기 교종과 선종의 교섭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6.
김두진, 『신라하대 선종사상사 연구』, 일조각, 2007.
최인표, 『나말려초 선종정책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조범환, 『羅末麗初 禪宗山門 開創 研究』, 景仁文化社, 2008.
김광식 역음, 『도의국사 연구』, 인복스, 2010.

2. 연구 논문

- 김두진, 『統一新羅 思想』 『韓國史論』1, 國史編纂委員會, 1981.
김두진, 『佛敎와 儒敎』 『제2관 韓國史入門』, 知識産業社, 1987.
최병헌, 『佛敎-風水圖識思想』 『제2관 韓國史入門』, 知識産業社, 1987.
채상식, 『古代中世初 思想研究의 動向과 「국사」 敎科書의 敍述』 『歷史敎育』45,
1989.
김두진, 『高麗時代 思想 및 學術』 『韓國史論』23, 國史編纂委員會, 1993.
김두진, 『羅末麗初 불교사 연구의 문제점』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불교시대사,
1994.

- 추만호,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新書苑, 1994.
- 채상식, 「교선의 문제와 신앙결사운동」 『한국역사입문』②, 풀빛, 한국역사연구회, 1995.
- 한기문, 「불교」 『고려시대사강의』, 늘함께, 한국중세사학회, 1997.
-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歷史學報』188, 2005.
- 김복순, 「신라불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고대사입문』3, 신서원, 2006.
- 김복순, 「신라불교의 연구현황과 과제」 『新羅文化』26, 2006.
- 김영미, 「불교 신앙과 사상」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上, 지식산업사, 2008.
- 권영오, 「신라하대 정치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新羅史學報』17, 2009.

Abstract

A Research Trend Regarding the Zen History in the Late Silla

Jung, Dong-Lak

Studies on the Zen history of the Late Silla had first been conducted at the level of organizing relevant data, beginning in the 20st century. Then, systematic studies had set off since the 1970s, and prepared its foundation while deducing the outcome that Zen was the religion of the powerful, local clans. After that in the 1980s, some issues were examin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nomination of Zen, whether nine mountain monasteries actually existed, th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ower, and the settlement of the position of Gyo-Zen. In the 1990s, an intensive analysis of the classification of eras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Zen, the character of middle age Buddhism, the social reformation theory of the Zen monks, and individual Zen sect was attempted. In the 2000s, the relationship between Zen and the Silla royal family was greatly highlighted, and, also, the individual review of nine mountain monasteries, the activities and Zen ideology of the Zen monk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Zen sect in the southwestern area of Silla and the power of Jang Bo-go.

As such, studies on the Zen history of the late Silla have consistently

pursued the correlation with political pow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Zen and Gyo(Hwaemjong). This was because this issue was the key topic for revealing the Zen history of the late Silla. Also, there has been intensive research into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denomination, the real existence of middle age Buddhism, individual Zen sect and Zen monks, and the analysis of Zen sect according to region.

Zen monks during the late Silla were intellectuals who lived their lives by being deeply anguished over reality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ime and by acting according to their belie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their assignment of the time was focusing on the Zen monks and how they perceived and responded to reality.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summarizing the lives and activities of the Zen monks as well as selections and critical awareness which appear at every stage of their lives. As one of those methodologies, it is deemed useful to classify the period of the Zen history of the late Silla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time, and to analyze the cases of the Zen monks by each period.

Key Words : the late Silla, Zen history, Zen monks, nine mountain monasteries,
research trend

논문 투고일 : 2011. 3. 22
게재 확정일 : 2011. 4. 28

심사 완료일 : 2011. 4. 14